

야구를 보다 보면 딱 그 타이밍이 있죠. “지금 오늘 경기 뭐 해?” 이거 하나만 바로 확인하고 싶을 때. 근데 야구중계 사이트는 메뉴가 많고 리그도 여러 개고, 둘러보다가 결국 헤매게 됩니다. 특히 KBO랑 MLB를 같이 보는 사람은 더 그래요. 오늘 경기만 딱 찍어서 들어가고 싶은데, 화면에는 온갖 일정이 펼쳐져 있잖아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아껴요. 핵심은 “공식 일정 기준으로 오늘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중계 정보만 확인하는 순서”를 고정하는 겁니다. 야구중계, mlb중계, 야구중계사이트를 찾는 분들한테도 이 흐름이 제일 덜 흔들리더라고요.

‘오늘 경기’ 필터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이유

야구중계에서 “오늘”은 달력의 날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 시간이 어디 기준이냐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KST(UTC+9)이고, 미국 동부시간(ET)은 시기에 따라 UTC-5 또는 UTC-4를 써요. 그러면 한국이 ET보다 13시간 [야구중계사이트](#) 또는 14시간 빨라집니다. 이 차이 때문에 MLB중계는 한국에서 보통 새벽이나 오전 시간대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MLB 경기라도 한국 시간으로 “오늘”로 묶일지, “내일”로 묶일지 애매해지기도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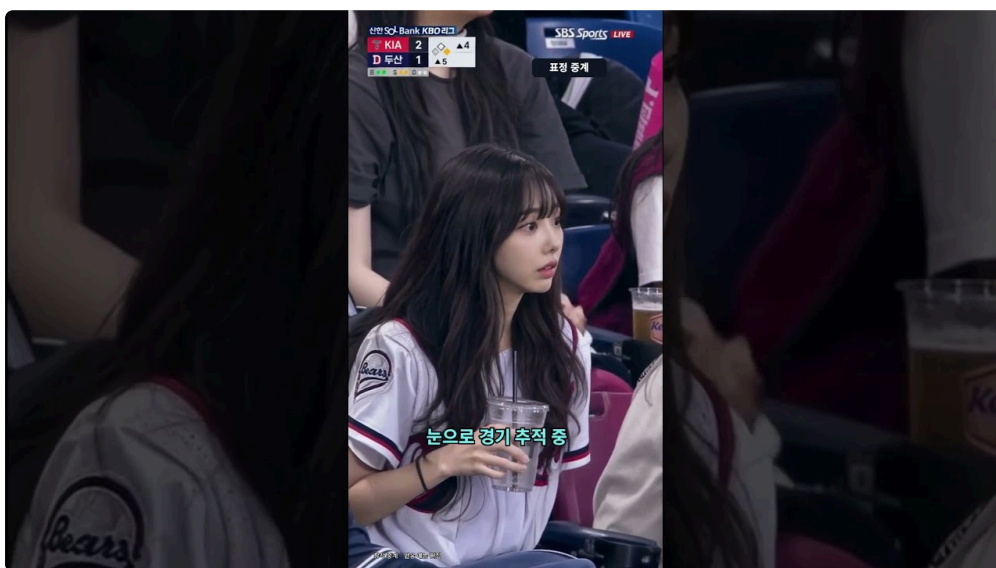
그리고 KBO 쪽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시작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KBO 정규시즌 잔여 경기 편성 공지 기준으로 9월 15일 이후에는 평일 18:30, 토요일 17:00, 일요일과 공휴일 14:00 시작으로 운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시즌이 진행될수록 “오늘 경기 시간” 패턴이 바뀌는 편이라, 사이트에서 오늘 필터만 눌렀다고 끝나는 느낌이 아닐 때가 있어요. 시간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경기만 빠르게 본다”는 건, 날짜 필터 하나로 끝내기보다, 리그별 운영 방식과 시차를 같이 고려해야 정확해진다는 뜻이에요.

가장 정확한 출발점은 공식 일정, 그 다음에 중계

야구중계사이트를 켜 뒤에 바로 “오늘”만 보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순서를 살짝 바꾸는 걸 추천해요.

1) 먼저 공식 일정/결과 페이지에서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경기 시작 시각과 장소를 확인합니다.



2) 그 다음 야구중계사이트에서 그 경기와 연결되는 중계 정보를 찾습니다. 3) 마지막으로 우천 취소나 순연처럼 일정 변동이 반영됐는지 점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KBO 공식 사이트는 월별 일정, 일일 일정, 순위 페이지를 제공하면서 경기 시간, 장소, TV/RADIO 편성,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MLB도 schedule 페이지에서 당일 경기와 팀별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 오늘 경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은 공식 일정이 제일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에서 야구중계사이트가 제공하는 중계 링크나 채널 구성이 따라붙으면 됩니다.

특히 KBO는 정규시즌이 3월 28일 개막이고,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를 치른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MLB도 2026 정규시즌은 3월 25일에 시작하고, 3월 26일이 본격 Opening Day라고 공식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시즌 초중반부터 일정 분포가 계속 이어지니까, “오늘만” 보려면 결국 기준 날짜를 정확히 잡는 게 먼저예요.

‘오늘 경기’ 필터를 빨리 누르는 실제 동선

여기서는 특정 사이트 UI를 가정하지 않을게요. 대신 어떤 야구중계사이트든 보통 공통으로 있는 패턴을 기준으로 “실제로 덜 헤매는 동선”을 얘기할게요.

먼저, 리그를 먼저 정합니다. KBO와 MLB가 섞여 있는 화면에서는 “오늘” 필터를 먼저 눌러도 원하는 리그가 섞여 나올 가능성이 큼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화면 진입하자마자 리그를 KBO 또는 MLB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오늘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야 “오늘 경기”가 흐려지지 않아요.

그 다음은 결과가 아니라 일정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야구중계사이트에서는 경기 타임라인, 예매나 하이라이트 영역처럼 일정과 결과가 섞여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오늘 경기 필터를 했는데도 “이미 끝난 경기”가 같이 섞여 뜨면, 일정 탭과 결과 탭 중 어디가 기준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KBO 공식 일정에서도 경기 시간과 결과를 함께 보여주지만, 사이트는 그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시각 기준을 한 번 더 체크합니다. MLB는 한국이 ET보다 13시간 또는 14시간 빠르기 때문에, 같은 MLB 경기 목록을 보더라도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오전~낮”에 걸려 있는지, 혹은 “내일 새벽”에 넘어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경기인데 왜 안 나와?” 싶은 날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걸리더라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였거나, 사이트가 표기하는 시간대가 기대와 달랐던 경우요.

KBO와 MLB를 같이 볼 때, 오늘 필터 전략

KBO와 MLB를 함께 챙기면 같은 “오늘”이라도 체감이 달라져요. KBO는 정규시즌이 이어지며, 후반부로 갈수록 평일과 주말 시작 시간이 고정 패턴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 이후에는 평일 18:30, 토요일 17:00, 일요일과 공휴일 14:00 시작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작 시간이 비교적 예측 가능한 구간이 생기면, 오늘 필터로 들어간 뒤 시간대만 쓱 훑어도 “오늘 경기가 맞는지” 판단이 쉬워집니다.

MLB는 Opening Day 일정이 특정 시간으로 안내되는 편이고, 한국 시청 시간은 시차 영향으로 훨씬 이른 새벽이나 오전에 붙는 경우가 많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2026 정규시즌은 Opening Day에 첫 경기 시작 시간이 ET 기준으로 공지된 경기들이 있고, 한국으로는 그 시간이 다음날 오전~낮 시간대로 이어진다고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MLB

는 “오늘”을 한국 달력으로 잡는지, 사이트가 보여주는 시간대 기준으로 잡는지부터 정리해야 빠르게 필터가 됩니다.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일단 KBO를 먼저 확인하고, MLB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오전~낮에 잡히는지”를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한 번에 리그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필터를 계속 만지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 ‘오늘’ 다음은 변동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오늘 경기만 빠르게 보고 싶어도, 중간에 일정이 바뀌면 [mlb중계](#) 끝장납니다. 우천 취소나 순연 같은 변동은 늘 “있을 수 있는 변수”라서, 저는 최소한으로라도 확인하는 단계를 남겨요.

아래 체크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딱 필터 끝나고, 들어가기 직전에만 보시면 됩니다.

- 필터가 적용된 리그가 내가 원하는 리그(KBO 또는 MLB) 맞는지
-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경기 시작 시각이 보이는지
- 경기 시간 표기가 한국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시간대 기준인지
- 취소나 순연 안내가 같이 뜨는지
- 중계 채널/플랫폼이 그 경기와 정확히 연결되는지

이 다섯 개만 확인하면 “오늘 경기만”이라는 목표가 거의 유지됩니다. 특히 MLB중계는 시차 때문에 “날짜는 오늘인데 시작이 이미 지났네” 같은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래도 시작 시각과 시간대 표기만 보면 방향이 바로 잡힙니다.

자주 생기는 착각들, 그리고 빠른 해결 감각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오늘 경기만 필터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은 자꾸 같은 착각을 반복해요. 저는 그 착각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고 접근하는 편입니다.

가장 흔한 건 “날짜 필터가 제대로 됐는데도 원하는 경기가 안 보인다”는 문제예요. 이건 보통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리그 섞임 문제예요. 예를 들어 화면에서는 오늘이 선택되어 있어도, 리그 필터가 MLB로 고정되어 있어서 KBO 경기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시간대 문제예요. MLB는 ET 기준 일정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한국 날짜가 바뀌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 달력 기준으로 오늘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사이트가 다른 기준으로 하루를 나누고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건 “오늘 경기 목록은 있는데, 중계가 없다”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중계 채널/플랫폼이 표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경기의 상태가 정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우천 취소나 순연 안내가 붙으면 중계가 바뀌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 공식 일정 기준에서는 변동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그 변동이 반영됐는지도 결국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경기’만 빠르게 찾는 실전 팁 3가지

여기서는 리스트 대신 문장으로, 제 작업 흐름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첫째, 리그를 먼저 고정합니다. KBO와 MLB가 동시에 섞이면, 오늘 필터를 눌러도 화면이 길어져서 결국 스크롤 시간이 늘어요. 리그를 먼저 고정하면 오늘 경기 목록이 바로 정리됩니다.

둘째, “시작 시간대”를 먼저 훑고 들어갑니다. KBO는 평일 18:30, 토요일 17:00, 일요일과 공휴일 14:00처럼 후반 운영 패턴이 안내되어 있으니, 오늘이 어느 요일인지와 시작 시간이 맞는지 확인하면 빠르게 걸러져요. MLB는 한국이 ET보다 13시간 또는 14시간 빠르다는 점을 떠올리면서, 오늘 오전이나 낮 시간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면 더 빨라집니다.

셋째, 중계 링크를 눌렀을 때 “오늘 경기 상태”가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이걸 사소해 보여도, 경기 시작 전에 링크를 껴는데도 취소나 순연이 걸려 있으면 시간 손해가 꽤 큼니다. 그래서 저는 중계를 보기 직전에 최소한의 변동 안내만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예시로 감 잡아보기: 한국 날짜로 MLB를 볼 때

예를 들어 누가 “오늘 새벽에 MLB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야구중계사이트에 들어가면 “오늘” 목록에 경기가 안 보이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MLB는 ET 기준 일정이 있고, 한국은 ET보다 13시간 또는 14시간 빠르기 때문에 한국 날짜로는 그 경기가 다음날 오전이나 낮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짜와 사이트가 계산하는 기준 하루가 어긋나면, 필터가 정상이어도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옵니다.

이럴 때는 “오늘”만 믿고 계속 새로고침을 하기보다, 시작 시각을 보고 그 경기의 한국 시간 위치를 재확인하는 게 더 빠릅니다. 필터를 바꿔서 내일 목록으로 넘기면 바로 찾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론이 아니라, 결국 남는 건 ‘습관’이에요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오늘 경기만 빠르게 필터하는 건, 기술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깝습니다. 리그를 먼저 고정하고, 시작 시간과 시간대 표기를 확인하고, 변동 안내가 반영됐는지만 체크하면 “오늘만”이라는 목표가 안정적으로 따라와요.

KBO는 시즌 운영 정보처럼 시작 시각 패턴이 공지로 안내되는 구간이 있고, MLB는 시차 영향이 커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 언제인지”를 의식해야 합니다. 둘 다 알고 들어가면, 야구중계, mlb중계,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시간을 덜 쓰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경기를 보게 된다는 거죠. 화면에서 헤매는 시간이 줄면, 야구에 쏟는 시간이 늘어납니다.